

## 8. 구변편(九變篇)

구변(九變)이란 아홉 가지 (사실은 무한한) 변칙을 말한다.  
전쟁터에서 도의와 매너란 사치스러운 일이며 화를 불러오는 일이다.  
원칙을 지켜서 손해를 입는 것보다 변칙을 써서라도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전쟁이다.

孫子曰 凡用兵之法에 將이 受命於君하고 合軍聚衆하여  
손자왈 범 용병지법 장 수명어군 합군취중

손자 말하기를 무릇 용병의 법에 장수가 임금에게서 명령을 받아 군을 편성하고 병력을 동원한 후에는

孫子曰 凡用兵之法에 將이 受命於君하고 合軍聚衆하여

圯地無舍하며 衢地合交하며 絕地無留며 圍地則謀하며 死地則戰하며  
비지무사 구지합교 절지무류 위지즉모 사지즉전

소택지(비지)에서는 숙영하지 말며, 사통 팔달한 요충지(구지)에서는 외교관계에 힘쓰며, 외진 곳(절지)에서는 머물지 말며,  
둘러 싸인 곳(위지)에서는 즉각 계책을 세우며,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곳(사지)에서는 결전할 준비를 해야 하며,

圯地無舍하며 衢地合交하며 絕地無留며 圍地則謀하며 死地則戰하며

途有所不由하며 軍有所不擊하며 城有所不攻하며 地有所不爭하며 君命을 有所不受니라.  
도유소불유      군유소불격      성유소불공      지유소불쟁      군명      유소불수

길이라도 가서는 안될 길이 있으며, 군대라도 쳐서는 안될 군이 있으며, 성이라도 공격해서는 안될 성이 있으며, 땅이라도 쟁탈해서는 안될 땅이 있으며, 임금의 명령이라도 수명하지 않을 바가 있다.

途有所不由하며 軍有所不擊하며 城有所不攻하며 地有所不爭하며 君命을 有所不受니라.

故로 將通於九變之利者는 知用兵矣오

고 장통어구변지리자 지용병의

장수가 아홉 가지 변화가 주는 이로움에 통달하였다면 용병을 아는 것이다.

故로 將通於九變之利者는 知用兵矣오

將不通於九變之利者는 雖知地形이나 不能得地之利矣요  
장불통어구변지리자 수지지형 불능득지지리의

장수가 구변의 이점에 통달하지 못한다면 비록 지형을 안다 하더라도 지형의 이점을 얻지 못할 것이요

將不通於九變之利者는 雖知地形이나 不能得地之利矣요

治兵에 不知九變之術이면 雖知五利나 不能得人之用矣리라  
치병 부지구변지술 수지오리 불능득인지용의

병사를 다스리는데 아홉 가지 술을 모른다면 다섯가지의 이점(五利)을 안다 하더라도 병사들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

治兵에 不知九變之術이면 雖知五利나 不能得人之用矣리라

是故로 智者之慮는 必雜於利害니 雜於利而務可伸也요 雜於害而患可解也라  
시고 지자지려 필잡어리해 잡어리이무가신야 잡어해이환가해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반드시 이(利)와 해(害)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니, 이로움에도 손해가 섞여 있으니 힘써 일하는 것이고, 해로움에도 이익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근심이 해결되는 것이다.

是故로 智者之慮는 必雜於利害니 雜於利而務可伸也요 雜於害而患可解也라

是故로 屈諸侯者 以害오 役諸侯者 以業이오 趨諸侯者 以利니라  
시고 굴제후자 이해 역제후자 이업 추제후자 이리

따라서 인접 제후를 굴복시키려면 해로움을 보여 주고, 그들을 부리려면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달려오게 하려면 이로움을 보여 주면 된다.

是故로 屈諸侯者 以害오 役諸侯者 以業이오 趨諸侯者 以利니라

故로 用兵之法에 無恃其不來하고 恃吾有以待也하며  
고 用병지법 무시기불래 시오유이대야

그러므로 용병의 법에, 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 믿지 말고 내가 적을 대비하는 태세가 되어 있음을 믿어야 하며,

故로 用兵之法에 無恃其不來하고 恃吾有以待也하며

無恃其不攻하고 恃吾有所不可攻也라  
무시기불공 시오유소불가공야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 말고 내가 적이 공격할 수 없는 태세로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無恃其不攻하고 恃吾有所不可攻也라

故로 將有五危하니 必死는 可殺이오 必生은 可虜요 忿速은 可侮요  
고 장유오위 필사 가살 필생 가로 분속 가모

장수에게 다섯가지 위태로운 경우가 있으니, 필사적인 자는 죽을 수 있고, 살려고만 하는 자는 사로잡힐 수 있고,  
노하기 쉽고 급한자는 (적에게) 모욕당할 수 있으며,

故로 將有五危하니 必死는 可殺이오 必生은 可虜요 忿速은 可侮요

廉潔 可辱이오 愛民 可煩也니 凡 此五者는 將之過也오 用兵之災也라  
염결 가욕 애민 가번야 범 차오자 장지과야 용병지재야

청렴결백에 치우친 자는 욕을 당하게 되고, 백성 사랑에 치우친 자는 생각이 번거롭게 되리니 이 다섯 가지는 장수의 과오요 용병의 재앙이다.

廉潔 可辱이오 愛民 可煩也니 凡 此五者는 將之過也오 用兵之災也라

覆軍殺將이 必以五危니 不可不察也니라

복군살장 필이오위 불가불찰야

군이 뒤집어지고 장수가 죽게 되는 것은 반드시 이 다섯 가지 과오 때문이니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覆軍殺將이 必以五危니 不可不察也니라